e-Kiet 산업경제정보

제240호 (2005-01) 2005. 1. 3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 새해 인사 〉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e-Kiet 산업경제정보」를 비롯한 저희 연구원 간행물 및 보고서를 구독 또는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속에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저희 연구원은 기업과 정부가 직면한 경제 현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산업연구원은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는 알찬 연구결과를 더욱 많이 생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요구와 의견을 충실히 수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의 새해 다짐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비판을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1월 3일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產業硏究院
www.kiet.re.kr

내수회복 시점이 경기국면 반전의 중대한 고비

2005년의 한국 경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내딛고 있다.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주도에 의한 성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실물경제의 향방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이 수출 둔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중 세계경제는 금리 인상, 고유가 지속 및 IT산업 경기의 둔화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며, 원화 환율도 하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의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침체에 빠져 있는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시기가 경기국면이 반전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수출-내수간의 균형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

2005년의 한국경제는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 풍요속의 빈곤 ’ 현상을 탈피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중 우리 경제는 수출이 연평균 30%를 넘는 유례가 드문 호조를 보인 반면, 민간소비는 매분기 감소하는 극심한 부진 속에서 수출-내수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수출-내수간 양극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IT산업과 운수장비산업 등의 호황과 내수의존형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침체라는 산업간 양극화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2004년의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소비와 투자의 기여도 상승은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2004년 중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05년 중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의 추진으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경제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불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주도입 유종인 두바이유의 경우 30달러대 전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1,000원대 중반에서 하방경직성이 강해져 시장의 불안심리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

2005년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최근의 내수부진은 상당 부분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과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에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동시적 침체는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장기간 90선 내외에 머물고 있고 기업설비투자 애로요인 조사(산은)에서 응답기업의 약 40%가 내수부진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은 가계의 과잉부채 조정과 소비주체의 미래소득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가계금융부채 잔액 증가율은 2003년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화에 일조하고 있으나 잔존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재무적 취약계층의 유동성 부족 만성화 및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미래소득의 불안 등이 지속적인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산업구조의 역동성 약화로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어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산업의 신규투자 여력 감소, IT산업의 조립가공형 구조에 따른 국내투자 유발효과 미흡,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저성장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구조적 요인이 투자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의

과감한 진출과 성장옵션의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주어진 도전과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해야

2005년 우리 경제의 앞길에는 많은 도전과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외적으로 거대 신흥공업국들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의 등장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의 확산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들은 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불완전경쟁의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신경제와 글로벌화가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요소투입형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본이 중심이 된 혁신주도형 성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경제주체들은 혁신주도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부는 생산요소의 사회적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시스템의 유연성 제고와 이를 위한 제도개혁에 더욱 힘써야 한다.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과감한 인력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미래산업의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과 가계들은 꾸준한 자기개발과 건전한 소비확산을 통해 고용과 소득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주어진 도전과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한다면 2005년의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상 봉
(산업연구원장)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産業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인 • 오상봉 편집인 • 윤우진 편집 · 교정 • 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